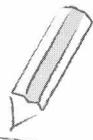


환경 · 산수 용어 해설



‘검역 · 검역소’

전염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처를 검역이라 하는데 1954년에 공포된 검역법에서는 콜레라, 폐스트, 천연두, 황열을 검역전염병으로 지정했다. 외국으로부터 내향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내향하거나 외국으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외국으로부터 출항하여 항해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는 이 법에 의하여 검역조사를 받고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검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구, 공항에 설치한 보건복지부의 부속기관을 검역소라고 하는데 장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의 합의 아래 정해진다. 대형 선박이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검역항, 별 검역장소는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충무항, 삼천포항, 진해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목포항, 마산항, 제주항 등이다.

‘경구독성’

경구독성이란 농약을 잘못 마시거나 뿐릴 때의 부주의, 즉 흡연, 분무기의 분출구가 고장났을 때 입으로 빨거나 농약을 뿐린 후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농약이 조금씩 체내에 들어와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분제 농약이건 약제농약이건 간에 농약을 뿐릴 때 빈틈 없이 주의를 하지 않는 한 많은 양이 조금씩 입을 통하여 몸에 들어오게 된다.

‘경관’

지리학이나 생태학에서는 독일어의 란드ша프트(Landschaft)에서 유래된 학술 용어로 사용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토지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그 미적 가치와 고유성이 중시된다. 경관 계획은 대상지역의 물리적, 생물적, 문화적, 역사적, 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즉 개성을 살린 토지이용으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유럽에서는 자연 경관이나 역사적 경관의 보전, 도시 경관의 완성사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자연공원의 지정, 풍치지구의 설정, 경관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도모되고 있다.

‘경도(hardness)’

물에 용해된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유량을 표시하는 방법. 당량수는 CaO 또는 CaO_3 로 계산하고 100ml 속에 1mg이 함유되어 있을 때의 물의 경도를 1도로 함. EDTA 표준액을 사용, 적정으로 간단히 측정함.

‘경제 수역’

해양의 연안국이 일정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 영해가 연안으로부터 12해리인 데 비해 경제 수역은 해안으로부터 2백 해리(약 3백 70km)다. 이 수역내에서는 어업 · 광물 · 석유 등의 자원에 대해 연안국의 권리가 인정되는 반면 해양 오염방지 등에도 의무를 가지게 된다.

‘경수’

칼슘과 마그네슘염류를 비교적 다량으로 함유한 물을 경수라 하며, 이러한 염류 함유량이 적은 물을 연수라 한다. 물 속의 칼슘 및 마그네슘의 물을 연수라 한다.

‘경지 황폐화’

경지 황폐화에는 토양 침식, 사막화, 염류 집적, 농약과 화학비료 등에 의한 오염이 있다.

제3세계에서는 삼림 파괴가 토양 침식의 최대원인이고, 미국에서는 윤작 대신 수출용 옥수수, 대두의 단작, 연작 등으로 토양 유실이 가속되고 있다. 과도한 산림채벌과 방목은 사막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토양에 탄산칼슘이 많고 수분증발이 심한 지방에서는 관개에 의해 염류 집적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의 고대문명이 붕괴된 것도 이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경수로·경수영 원자로’

경수감속냉각형 원자로로서 줄여서 경수로라고 한다. 이 원자로는 미국에서 개발된 상업용 발전로서 세계 원자력발전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출력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중성자의 감속재로서 일반적인 물, 즉 경수가 사용되는데 이 물이 노심을 냉각시키는 냉각재 역할도 하며, 연료로는 3%로 농축된 이산화 우라늄이 사용된다. 경수로에는 가압수형과 끓는 물형이 있는데, 전자는 미국의 2대 메이커의 하나인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이 개발한 것으로 외국에서도 기술제휴로 사용하는 곳이 많으며, 후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것으로 상당수 외국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경피독성’

경구독성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피독성이다. 농약이 피부를 통하여 몸에 들어와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를 경피독성이라 한다. 농약 조제작업시 손에 묻거나 살포작업시 몸의 노출부에 묻는 경우 또는 약액이 옷을 적시고 피부에 묻을 경우 등 피부와 접촉되는 경우 농약이 체내에 들어와 쌓이거나 또는 해를 끼치게 된다.

‘계면활성제’

표면활성제라고도 하며, 액체의 표면에 흡착되어 계면의 활성을 크게 하고 성질을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특히 표면장력을 떨어뜨리고 세정력, 분산력, 유화력, 기용력, 살균력 등이 뛰어나며, 가정용 세제를 시작으로 각종 공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양이온 계면활성제로 대별하고, 어느 것이나 분자 중에 친수성과 친유성 원자단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대부분은 계면활성제이고, 합성세제의 일부는 정화가 어려워 하천, 우물 등을 오염시키기 쉽다.

‘경지 면적’

우리나라의 경지 면적은 1965년에 약 2백26만 ha였으나, 1993년에는 약 2백6만ha로 감소(국토 면적의 20.7%)되었다. 그중 논 면적은 1백 30만 ha고 밭 면적은 76만ha다. 1965년 157.8%에서 1993년 110.4%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